

<續思美人曲>의 紀行文學性 考察

柳年錫*

<차례>

- I. 序論
- II. 製作背景
- III. 作品構造
- IV. 紀行文學性
- V. 結論

I. 序論

유배가사는 개인적 정서와 시대적 정신이 절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사회적·정치적 갈등 속에서 정치권 밖으로 밀려나 현실복귀의 재진출을 꿈꾸는 그들의 사상과 염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는 유배지에서 겪은 사대부들의 고민과 회한이 담겨있고 당쟁에서 패배했던 실상과 작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또 유배자들은 교훈과 자연의 풍류보다는 불우한 자신의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영화의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의 강구가 급선무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배가사의 내용은 작가의 일상생활과 달라진 험난한 유배생활을 소재로 쓰여진 것이기에 다른 가사보다 그 내용이 더욱 절실하게 전개되었다.

* 순천대학교

유배문학이라 하면 유배자가 適所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또는 스스로 상상하고 가상해 본 허구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 것을 말한다. 국문학사를 통하여 보면 과거부터 수많은 유배작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實兮歌>는 신라 진평왕조 上舍人 실혜가 지은 노래로 下舍人 珍提의 讒訴로 冷林이라는 벽지에 遠竄되어 거기서 그의 孤忠을 述懷한 노래이고, <冬栢木>은 고려 충숙왕 때 蔡洪哲이 먼 섬으로 귀향가서 德陵을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노래다. 그리고 <鄭瓜亭>은 고려 毅宗 때 鄭敍가 定配地인 동래에서 임금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읊은 노래다. 또 <九雲夢>은 金萬重이 宣川에서 남해 절도로 이배된 후 어머니의 병환을 위로해 드리려고 쓴 것이고, 「謝氏南征記」도 仁顯王后의 廢黜을 諷諫하려는 의도에서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서 가사문학에도 유배작품이 상당히 보인다. 즉 연산군 때 曹偉(1454~1503)가 순천 배소에서 지은 <萬憤歌>를 비롯하여, 중종 때 李緒(1484~?)가 담양에서 지은 <樂志歌>, 숙종 때 金春澤(1670~1717)이 제주도에서 지은 <別思美人曲>, 영조 때 李眞儒(1669~1730)가 추자도에서 지은 <續思美人曲>, 또 이진유의 조카 李匡明(1701~1778)이 갑산에서 지은 <北竄歌>, 李匡師(1705~1777)가 회령에서 지은 <戊寅立春祝聖歌>, 그의 아들 李肯翊(1736~1806)이 지은 <竹槍曲> 등은 伯父와 從祖父인 이진유의 죄에 緣坐되어 유배를 당하는 처지에서 창작된 유배가사다. 정조 때 安肇源[煥](1765~?)이 추자도에서 지은 <萬言詞>, 철종 때 金鎭衡(1801~1865)이 명천에서 지은 <北遷歌> 등이 현재 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배가사이다.

<속사미인곡>은 조선 英祖代의 北谷 李眞儒가 추자도 配所에서 지은 유배가사이다. 이 작품은 유배가사 외에도 연군가사, 기행가사, 미인가사 등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유교적 덕목의 옹호와 실존적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작가의식의 이중성 역시 표현되어 있다.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하여 장르적 복합성, 이중적 작가 의식, 유배가사로 기행문학적 특질 등을 고찰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속사미인곡>의 연구는 1956년 이병기¹⁾에 의해 가사의 내용이 처음으로 學界에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작가가

이진유라는 것을 밝히는 성과가 있었으나, 原文의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연구의 진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 후 1961년에 刊行된 『주해가사문학전집』²⁾에 이 작품이 수록되어 연구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후 정익섭³⁾은 유배문학을 직접·간접·광의적으로 구분한 후 <낙지가>, <별사미인곡>, <속사미인곡>, <만언사>, <북천가> 등의 유배가사에 대하여 작가와 작품, 단락별 내용, 형식, 사상, 가풍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는 「思想攷」에서는 충군·연군·우국, 자연귀의적, 현실도피적인 은일사상, 낙천적이고 향락적인 사상 등을, 「歌風攷」에서는 고백적, 서사기행적, 낙천적인 면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서원섭의 「속사미인곡 연구」⁴⁾는 최초의 <속사미인곡>에 대한 본격적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작가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충실한 연구가 있었으나 작품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혜숙⁵⁾은 동일한 소재를 가진 일군의 작품들을 일괄·분석하여 가사문학의 변모와 변천을 고찰하였다. 양순필⁶⁾도 제주 유배문학 가운데 추자도를 배경으로 창작된 이진유의 <속사미인곡>과 안조환의 <만언사>과 <만언사답>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생활상을 고찰하였다.

이돈모⁷⁾는 <속사미인곡>을 李眞儒家의 歌辭인 <북천가>, <무인입춘축성가>, <죽창곡> 등을 함께 다루면서 그 個別性和 獨自性, 그리고 영향관계의 해명을 시도하였다. 개별성과 독자성은 충분히 납득 할만하나, 영향 관계와 내용적 연구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그리고 윤재철⁸⁾은 작가의 생애와 형식, 작가의식과 유배가사의 대비를 연구한 바, 전자는 개괄적

1) 이병기,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5호, 국어국문학회, 1966, 506~513쪽.
 2) 김성배 외,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175~190쪽
 3) 정익섭, 「유배문학소고-가사작품을 중심으로-」, 『양주동박사회갑기념논문집』, 동국대, 1963.
 4) 서원섭, 「속사미인곡 연구」,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204~246쪽.
 5) 김혜숙, 「유배가사를 통하여 살펴본 가사의 변모양상」,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1983.
 6) 양순필, 「제주유배가사에 나타난 생활상」, 『제주대학논문집』 제17집, 인문학편, 1984.
 7) 이돈모,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8)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84.

으로 가볍게 고찰하였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각도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전개하였다. 장수현⁹⁾은 사미인곡계 가사 연구에서 님에 대한 연모는 관념적이거나 상투적인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 님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는 물론 님에 대한 연민과 근심보다는 자기의 현실적 고통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정철의 <사미인곡>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속사미인곡>의 개별성과 특수성의 고찰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 이 연구에서는 작품구성과 내용분석을 심도 있게 살피는 데 역점을 두었다. 사대부의 유배가사라 해서 충신연주지사라든가 사미인계가사의 범주에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되고 작품의 특수성과 위상에 걸맞은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결과의 종합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작품의 독특한 구조와 작가의식 속에서 형성된 작품의 참모습을 고찰하고자 제작배경과 작품구조 및 기행문학적 성격을 중점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II. 製作背景

이 장에서는 <속사미인곡>의 제작배경으로 작자의 생애와 당쟁의 실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원섭¹⁰⁾의 연구가 돋보인 바, 이를 참고로 하여 첨삭 정리하고자 한다.

北谷 李眞儒(1669~1730)는 자를 士珍, 호는 北谷, 본관은 全州다. 그는 王孫으로 定宗의 別子 德泉君의 10대손으로 부친 大成은 벼슬이 戶曹參判이었고, 모친은 豊山洪氏로 의정부 右參贊 겸 知經筵事 洪萬容의 딸이다. 그는 서대문 밖 盤松坊에서 眞儉, 眞休, 眞伋, 眞偉 등 5형제의 장남으로 그의 伯父인 晩成에 入養하였다.

그는 39세(숙종33년, 1707)에 別試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다. 43세

9) 장수현, 『사미인곡계 가사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10) 서원섭, 전계서, 209~216쪽.

에 奉敎, 45세에 副校理에 오르고, 46세에는 전국에 이변이 일어 전라도 暗行御史가 되었다. 48세에는 4번이나 자리가 바뀌고, 老論과 少論의 당쟁이 극심하게 되었다. 北谷의 生父 大成은 소론의 極峻者로 대쪽같이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북곡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바, 대성과 함께 宋時烈과 尹宣學, 尹拯 父子와의 시비 渦中에 말려들어 싸우다가 安重弼의 상소를 당했던 것이다.

이처럼 北谷이 官界에 진출한 시기는 극심한 黨爭의 渦中이었다. 肅宗 42年(1716) 2월 上疏가 始端이 되어 老少의 상호 攻斥은 激烈해졌다. 소론의 攻擊으로 尹宣學, 俞榮 共編 「家禮源流」가 毀板되고, 鄭澔가 劾職되며, 俞相基가 나주로 유배되는가 하면, 노론의 斥疏로 尹宣學, 尹拯 父子의 官爵이 削奪되고 先正呼稱이 금지되며 문집이 毀板되고 書院이 撤毀되었다.¹¹⁾ 北谷 자신도 7월에 드디어 削黜을 당해 景宗 元年 辛丑(1721)에 이른바 “辛丑疏”로 正言에 特除되어 집권하기까지 5년 간을 노론 政權 아래서 蟄伏한다.

52세(숙종46년, 1720)에 숙종이 승하하고 34세인 景宗이 즉위하였다. 그런데 景宗 元年에 왕이 後嗣가 없고 病弱하다는 이유로 노론이 延祔君(후일 영조)을 세워 儲嗣로 하고 10월에 趙聖復이 상소하여 世弟代理聽政을 내리게 하였다. 이 代理聽政이 소론 崔錫恒의 상소로 환수되고 노론의 상소로 다시 還收되어 한 달 사이에 네 번 바뀐다. 소론의 과격파 金一鏡은 심지어 연잉군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 이 때 辛丑 12월에 북곡은 김일경을 疏頭로 하여 다른 5인과 함께 世弟의 參政을 상소한 趙聖復과 노론 四大臣을 景宗의 儲嗣를 세우고 代理聽政케 하여 景宗을 偶像으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四凶이라고 彈劾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六人辛丑疏다. 이 상소로 왕이 진노하여 노론 四大臣이 遠竄되고 소론이 집권하게 된다. 이에 遠竄된 四大臣을 賜死케하고 逆賊 討伐의 領敎文을 지어서 노론 數十名을 殺害追放을 시켰다. 이 가운데 노론의 옹호를 받고 있던 연잉군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불안 초조와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일

11) 『肅宗實錄』 卷57, 42年 丙申 2月記

찍이 자기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김일경을 필두로 한 6인에 대한 憎惡心은 골수에 박히게 되었다.

북곡은 신축소를 올린 후로 三司의 탄핵을 모두 지휘하였으며, 副提學, 戶曹參判, 大司成, 大司憲을 거쳐 景宗 4년에는 吏曹參判에 오르는 등 그의 정치생활 중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경종이 昇遐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에 의한 소론 탄핵의 疏가 올랐다. 소론 斥疏는 신축소로 비롯되는 辛壬獄事에 가담한 북곡과 金一鏡 등을 주대상으로 鞫問 處斷해야 한다는 노론의 상소 庭啓가 계속 올라 김일경과 睦虎龍은 誅殺되고 辛丑疏下 6인도 삭탈관직하여 문밖으로 출송되었다. 이런 가운데에 禮曹判書 李眞儉이 사신간 그의 형 북곡의 신축소에 대한 斗護의 상소를 하였다가 견책만 당하였다. 그 후 대사간 兪命弘의 拿鞠의 상소가 있었고 의정부의 狀啓로 북곡은 나주에 유배되었다. 이에 북곡은 告訃副使로 중국에 갔다 還國하는 길로 정사 일행보다 한발 앞서 適所로 향한다. 영조 원년 2월 북곡의 子姪들은 면직되었고, 6월에는 동생 진검도 강진현에 유배되었다. 또 북곡은 7월에 추자도로 이배되어 加棘을 당하였다. 영조 3년 絶島에서 出陸하여 近地로 이배되었으나 正形에 處해야 한다는 啓가 계속되었으며 前後無慮 38차에 이르렀다. 결국 영조는 북곡에게 絞首刑을 내리었으나 대신들이 이진유는 辛丑疏 이외에는 다른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간청하여 이전의 배소인 나주로 이배되었다.

그런데 영조가 蕩平策을 썼으나 과벌이 여전히 심했다. 영조는 左相 洪致中에 그 이유를 물었다. 좌상은 殿下가 비록 탕평에 힘쓰나 조정에 따르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영조는 말하기를 그럼 이진유를 必殺하고 柳鳳輝에게 施律하고 四忠祠를 중건하면 모든 신하가 立朝하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북곡이 그 당시 노소론의 싸움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영조의 미움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었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 영조는 辛丑疏下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골수에 맺혔기에 귀양 보내고서도 부족해 臺諫이 重律을 청하지 않는다고 노론보다 더 극성이었으니, 王이 下敎하여 이진유 등을 다시 拿鞠하라하니 마침내 그는 서울로 押送되어 鞫問을 받게된다. 영조 6년 5월 13일 그의 나이 62세에 物故를 당

하고 말았다.

이 작품의 형상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론이 집권한 시기의 기록에는 북곡을 강인하고 당론을 좋아하는 인물로 평하고 있으며,¹²⁾ 영조 4년 노론이 집권하여 소론의 일파를 역적으로 처단할 때 평은 반대파의 평이기에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慷慨之士요, 언행은 輕佻하고, 識見이 없고, 筵奏를 잘하고, 黨論을 좋아하고, 愚直, 偏狹, 剛忍, 性急한 듯하다.¹³⁾ 이러한 성격은 그의 가사에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 “愚直하기 본성이오 狂妄함도 내 죄오나”라고 했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은 그가 유배를 당하게 되고 급기야 중앙에 압송되어 문초를 당하다 죽게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한 작품 전체에 흐르는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북곡은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연군적 정서와 현실에 대한 발분적 정서의 갈등¹⁴⁾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사의 서사에서부터 나타난다.

위에 나타난 유배 상황을 요약하면, 57세(영조1년, 1725) 1월에 나주로 유배되었다가, 7월에는 추자도로 이배당했다.(아우 眞儉도 6월에 강진에 유배) 59세(영조3년, 1727) 10월에 다시 나주로 이배되었으나 유배생활 6년째인 62세(영조6년, 1730) 4월 鞫問物故당했다. 북곡은 死後 25년(영조31년, 1755) 羅州壁書事件으로 소론의 治罪가 문제되어 逆律이 追施되어 綠坐定配가 있어, 北谷의 조카 李匡明은 甲山으로, 李匡師는 會寧으로, 北谷의 손자 李肯翬도 함께 유배되어 一家四篇의 유배가사를 남겼다.

12) “李眞儒爲史曹參議…性剛忍, 勇於黨論得志後 主張時論 人物進退 一任好惡”, 景宗實錄』卷六 二年 壬寅 二月 戊午(이돈모, 전개논문, 10쪽 재인용).

13) “李眞儒爲人慷慨且能解事原其心事終非負國之人也”『英祖實錄』卷十八 四年 戊申正月 戊辰.
 “眞儒者而輕俳無見爲人愆(曳+心)有此筵奏惜乎人之動於禍福如此也”『英祖實錄』卷十八 四年 戊申 正月 戊辰.
 “李眞儒性偏病於黨論”『英祖實錄』卷十九 五年 己酉 正月 壬戌.
 “意基自用之性急於於護黨自不覺妄着之歸自”, 『英祖實錄』卷十九 五年 己酉 二月 癸未(서원집, 전개서, 223쪽 재인용).

14) 최중식, 『유배가사연구-만분가, 별사미인곡, 속사미인곡, 만언사, 만언사답, 북천가를 중심으로-』, 전주우석대 석사학위논문, 45쪽.

Ⅲ. 作品構造

美人系 가사중 美人이 君主를 지칭하는 가사들은 한결같이 戀主忠君을 중심 모티브로 자기의 결백성과 충성된 마음을 호소하여 소원해진 聖寵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통된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속사미인곡>에서 北谷도 비록 왕명에 의하여 유배되었지만 왕을 원망하지 않고 衆女(老論派)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왕이 絶島로 유배시켜 衆怒를 막아 주었다고 하여 오히려 성은에 感泣하고 있다.

이 작품은 明나라 使行을 다녀오던 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近畿에서 압송되어 나주에 유배되었다가 추자도에 移配되어 가는 路程과 그 곳에서의 梅棘된 3년간의 온갖 회포를 읊고 있다. 이처럼 紀行歌辭로도 볼 수 있는 <속사미인곡>은 그 내용의 전개에 따라 작품구조를 序詞, 本詞, 結詞 등 크게 셋으로 나누고, 本詞로 다시 8단락으로 분단하여 모두 10단락으로 나누었다.

정익섭은 전체를 10단락으로 분단하여 고찰하였는데, 제10단은 가사의 終結形式인 終行을 落句라 하여 結詞로 보았고, 이는 蒙放의 恩典을 祈願하는 '祈願詞'로서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을 한뭇음한 구절이므로 비록 16자 밖에 안되는 짤막한 사연이지만 결사로 분단한다고 하였다.

이돈모는 내용의 전개에 따라 序詞, 本詞, 結詞로 크게 3분하여 나누고, 본사는 다시 10개로 분단하여 총 12단락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도 이 작품의 終行인 '두어라! 王庶幾改之를 余日望之호노라' 를 결사로 보고 祈願詞라 하여 정익섭의 논지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윤재철은 <속사미인곡>의 내용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제1단락은 序詞, 제2단락에서 제11단락까지는 本詞, 제12단락은 結詞로 구분하였다. 序詞는 <사미인곡>에서처럼 유배기간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고, 本詞는 유배생활의 구체적 반영과 소외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結詞는 祝願詞로 落句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특히 本詞는 작가의 경험을 단편적으로 나열한 插話的 展開라 하였다. 또한 起承轉結의 구조로도 파악할 수도 있어 전체적 유기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 구조

로 나누어 전자를 육지와 바다로 후자는 현재와 과거로 나누었다. 육지는 사대부 의식을, 바다는 님에 대한 불신과 간고한 현실적 삶을 주로 전개하였다. 현재는 현실에 순응과 이해를, 과거는 밤의 시간을 통하여 歸巢意識과 疎外意識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작품의 구조를 살펴건데 序詞, 本詞, 結詞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다시 8단락으로 분단하여 총 10단락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序詞로 1행에서 5행(삼년을 님을 떠나~선음한다 니르노쇠)까지 다.

삼년(三年)을 님을 떠나	희도(海島)의 뉴락(流落)하니
내 언제 무심(無心)하여	님의게 득죄(得罪)한가
님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待接) 소(疎)히 한가
내 얼굴 곱뎠던지	질투(嫉妬)홀산 중녀(衆女)로다
유한(幽閑)한 이 내 몸을	선음(善淫)한다 니르노쇠

이는 작품의 序詞로 여기서는 3년 간 님을 떠나 추자도에 머무르게 된 동기를 진술하였다. 유배의 동기는 님과의 이별 때문인데, 이는 자신이 득죄한 것도 아니고, 님이 박정해서도 아니라 자신을 질투한 못 여인들의 참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서 중녀는 政敵(노론)을 나타내어 자신의 유배가 노론 일당의 모함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내 얼굴 곱뎠던지 질투홀산 중녀로다’는 美人系歌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

다음은 本詞의 제1단락으로 6행에서 22행(서하의 식옥하고~피눈물이 절노 난다)까지 죄인으로 압송 당한 장면이다.

서하(西河)의 식옥(拭玉)하고	사자거(使者車)로 도라오니
봉황성(鳳凰城) 다드르며	고국소식(故國消息) 경심(驚心)한다
황혼(黃昏)의 넷기약(期約)을	다시 거의 츠즐너니
참언(讒言)이 망극(罔極)하니	님이신들 어이홀고

시호(市虎)도 성의(成疑)하고	증모(曾母)는 투저(投柀)하니
우리 님 날 밋기야	세상(世上)의 님 비(比)홀고
등산방서(中山謗書)를	협등(篋中)의 ㄱ득 두고
함정(檻穽)의 견져 내어	선디(善地)의 편관(編管)하니
구연성(九連城) 노숙(露宿)하고	압녹강(鴨綠江) 밧비 건너
성초(星貂)를 부리오고	초교(草輶)를 ㄱ리시러
청천강(淸川江) 삼일우(三日雨)의	정삼(征衫)을 다 적시고
성야(星夜)의 질치(疾馳)하야	패수(溲水)를 건너올시
일하 음신(日下音信)을	어드로서 또 드러다
근기압송(近畿押送)은	고금(古今)의 초견(初見)이오
즈딜제직(子姪除職)은	이은(異恩)도 도첩(稠疊)하니
박명(薄命)하 이 내 몸의	님의 은혜(恩惠) 이리하니
너관 잔등(旅館殘燈)의	피눈물이 절노 난다

위에 나타난 특징은 기행문 형식으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는 데, ‘셔하 → 봉황성 → 구연성 → 압녹강 → 청천강 → 패수 → 근기’로 이어져 명나라로부터 故國으로 돌아오는 使行 길의 路程이 묘사되어 있다. 유배소식을 듣고 불안해 하는 작자의 행동과 마음을 함께 축급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성초’와 ‘초교’는 영육의 상징으로 使臣에서 流刑囚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는 自己救援意識¹⁵⁾을 노래한 바,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적 조건을 합리화하여 해석한 것이다. 즉 ‘참언이 망극하니 님이신들 어이홀고’라든지, ‘市虎도 成疑하고 曾母는 投柀하저’에서도 셋이 같은 말을 하면 누구나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고사를 통하여 여론에 몰려 자기를 유배형에 처한 님을 두둔하고 있다. 또 ‘中山謗書를 篋中の ㄱ득두고’라 하여 樂羊이 中山을 공략하기에 자리를 비운 없는 사이에 誹謗文이 가득한 상자를 文侯가 약양에게 보여 준 고사와 자신이 告訃副使로 明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언이 망극하였다는 일을 同一視하여 문후와 영조가 같은 심정이었다는 위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디의 편관하니’도 옛날 중국에

15)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28쪽.

서 편관은 重刑囚에게 얼굴에 暗墨(먹으로 문신)을 하는 형벌이 있는데, 자신의 죄가 중형에 해당되지만 聖寵으로 좋은 배소(나주)에 내친 것은 편관과 같다는 뜻으로 인용하였다. 즉 편관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성충에 의해 죄가 가벼워질 수가 있었다는 자기 위안인 것이다. 이는 절대군주의 권력 앞에 무력한 관료의 불안의식의 반영이었을 것이고 자기 구원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제2단락으로 23행에서 44행(금오리 금택귀를~도처의 망극하다)까지다.

금오리(金吾吏) 금택귀(金澤龜)를	벽제역(碧蹄驛)의 만나보고
선산(先山)의 잠간(暫間)드러	통곡(痛哭)하여 비별(拜別)하고
성서구택(城西舊宅)의	가묘(家廟)의 하직(下直)하니
원근친척(遠近親戚)이	손 잡고 니별(離別) 홀시
청운구봉(靑雲舊朋)은	안등(眼中)의 드무도다
엄정(嚴程)이 유한(有限)하니	경각(頃刻)인들 엄뉴(淹留)하라
관악산(冠岳山) 십리디(十里地)의	송추(松湫)의 홀날 쉬어
천나행장(千里行裝)을	초초(草草)히 초려갈시
종남(終南)을 회수(回首)하니	오운(五雲)의 의의(依依) 하고
의릉(懿陵)을 첨망(瞻望)하니	송백(松柏)이 창창(蒼蒼)하다
고신원누(孤臣怨淚)를	한수(漢水)의 ㄱ득썩려
님 향(向)한 일편정(一片情)을	참고 춤아 썩어나가니
내 마음 이러홀 제	님이신들 니즐손가
호남(湖南)길 더위잡아	노령(蘆嶺)의 올라쉬어
북(北)으로 도라보고	두세 번 탄식(歎息)하니
부운(浮雲)이 폐일(蔽日)해야	경국(京國)을 못볼노다
금성산(錦城山) 바라보고	적소(謫所)를 초조가니
남주 대도회(南州大都會)의	낙토(樂土)를 처음 보와
주인(主人) 덩스군(鄭使君)이	마조나 반겨하니
거처(居處)도 과분(過分)하고	의식(衣食)도 넘너(念慮)업다
망라(網羅)의 벗기신 몸	이곳의 언식(偃息)하니
가지록 님의 은혜(恩惠)	도처(到處)의 망극(罔極)하다

이는 작자가 죄인으로 서울 근교에서 압송되어 나주 배소에 도착하는 출발 情景을 그린 것으로 義禁府 金吾吏의 護送을 받으며 先山에 들러 痛哭 拜別하는 정경과 城西 舊宅의 家廟에 下直하고 遠近親戚과 손잡고 이별하는 정경은 그야말로 斷腸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그렇게도 많던 靑雲의 옛 벗도 죄인이 된 지금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世情과 그렇게도 寵愛해 주시던 懿陵(景宗)을 바라보면서 죄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 특히 여기서는 先王(景宗)과 ‘님 향한 일편정’을 병행하여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고픈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었다.

千里行裝을 차려 湖南길 접어들어 戀君의 懇曲한 表情을 이기지 못하여 蘆嶺에 올라 北向하여 再拜하고 戀君의 정을 표현하고 浮雲이 가려있는 京國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장면 등은 펍 실감있게 묘사되어 있어 측은한 정서를 한층 더 돋우었다. 浮雲이 弊日하야라 하여 政敵(老論)이 성충을 가려 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없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반대파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배소인 나주에 이르니 鄭使君이 居處와 依食을 念慮해 주니 풍요와 편안함에 감사하여 이것이 모두 님(영조)의 은혜가 도처에 망극하다고 했다.

다음은 제3단락으로 45행에서 70행(시지욕살하야~경뇌나 다를 손가)까지다.

시지욕살(時帝欲殺)하야	화식(禍色)이 층격(層激)하니
도거정확(刀鉞鼎鑊)이	도석(朝夕)의 위급(危急)일새
절도천극(絶島桎棘)으로	중노(衆怒)를 막으시니
종시(終始)에 곡전(曲全)하심	오늘이야 더욱 알다
선덕 스방(宣力四方)은	신조(臣子)의 직분(職分)이라
봉사미로(奉仕微勞)를	일코를 것 전(全)히 업다
전후 은포(前後恩褒)는	화곤(華袞)도곤 빗나시니
이죄 위영(以罪爲榮)은	이 더욱 망외(望外)로다
즈식(姿色)도 업슨 내오	지덕(才德)도 업슨 날을
무어술 취(取)하시며	무어술 둥(重)히 녀어
언언(言言)이 장허(獎詡)하며	스스(事事)의 두호(斗護) 하샤

비박(非薄)호 이 흐믓을	다칠가 념(念)호시니
엇그제 만난 님이	정의(情誼)는 닛듯서듯
님의 뜻 나 모르고	내 뜻도 님 모르며
무슨 일 이대도록	견견(譴譴)호미 곡진(曲盡)호고
백년(百年)을 희로(偕老)호들	이에서 더호손가?
님의 은혜(恩惠) 이력스록	기질(忌疾)흠은 더 심(甚)호의
희도(海島)도 하고 한 대	원악디(遠惡地)를 골나내어
백년형극(百年荊棘)을	츄즈도(楸子島)의 처음 여니
골육(骨肉)도 구시(仇視)거든	남이야 니를손가
항니(行李) 다 츠리고	금오낭(金吾郎)을 기드랄시
엇더타 우리 묘군(卯君)	금능(金陵)의 원덕(遠謫)호니
문운(門運)도 건둔(蹇屯)호고	가화(家禍)도 첩첩(疊疊)호다
월남촌(月南村) ㄹ을밤의	기회(期會)호여 니별(離別)호니
타향대침(他鄉對枕)은	이 또호 님의 은혜(恩惠)
격희상망(隔海相望)은	경뇌(瓊雷)나 다를 손가

이는 北谷이 英祖 元年 7월2일에 絶島(추자도)로 移配의 命을 받는 것을 두고, 衆怒(老論)의 禍色이 層激하니 刀鉅鼎鑊이 朝夕에 위급하므로 英祖가 그를 살릴 생각으로 絶島 柵棘으로 衆怒를 막았다고 하며 그 恩寵이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서 以罪爲榮을 더욱 望外라 하였다.

작가의 생애에서 본 바, 영조는 이진유 일파를 극히 미워했다. 당시의 재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재앙이 벌어질 것만 같아 조석으로 위급하다고 하여 자신에 대한 治罪論議가 얼마나 절박한 지 가히 짐작할 수 있고, 이런 위기에 처한 자신을 임금이 추자도로 유배시킴으로 조정의 진노를 막아주니 극진한 은혜를 진심으로 알겠다고 하여 聖寵을 찬양하였다.

님의 은혜 이럴수록 기질함이 더욱 심해 결국 백년형극을 여는 님을 원망하고 있다. ‘骨肉도 仇視거든 남이야 니를손가’에서 골육(님)도 자신을 원수로 보고 있거늘 남(政敵)이야 말하여 무엇하리라고 추자도 이배의 명령은 작가에게는 님에 대한 怨望意識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의식은 충군의식과 원망으로 이어진 敗北意識으로

작가의식의 二重性을 보여 심리적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

또 추자도 窟棘의 命이 있자 行李를 준비하고 金吾郎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영조 원년 6월 25일 金陵 康津縣에 被謫된 卯君(眞儉)과 相面하여 門運의 蹇屯함과 家禍의 疊疊함을 탄식하고 月南村에서 다시 相逢할 것을 期約하는 정경의 진실적 描寫는 哀切함을 더해주고 있다.

다음은 본사의 제4단락으로 71행에서 91행(니진항구의~우리님 도으신가)까지이다.

니진항구(梨津港口)의	쥬즙(舟楫)을 덩동(整頓)하야
동풍(東風)이 건듯 불며	쌍범(雙帆)을 높히 다니
창파묘망(滄波渺茫)하며	물밖근 하늘일다
고도(孤島)를 지점(指點)하니	흑즈(黑子)만 계유(繫留)하다
시야장반(時夜將半)하며	광풍(狂風)이 접턴(接天)하니
둥뉴실타(中流失柁)하야	호흡(呼吸)의 위턱(危殆)홀시
장년(長年)이 속수(束手)하고	쥬즙(舟中)이 실식(失色)하니
묘연(渺然)한 내 몸이	스싱(死生)이야 관계(關係)하라
지싱(再生)하신 님의 은혜(恩惠)	등도(中道)의 귀허(歸虛)홀가
감심(甘心)하던 모든 원(願)을	오늘날 일위 줄가
경스(經史)를 묵송(默誦)하고	넛스람을 생각하니
부강(涪江)의 덩숙즈(程叔子)는	성경(誠敬)으로 득력(得力)하고
청회(淸淮)의 당즈방(張子房)은	툇신(忠信)으로 힘닙으나
평싱(平生)이 점검(占檢)하니	이 공부 쇼여(工夫掃如)하다
치석(采石)의 착월(捉月)하던	니적선(李謫仙)과 함기 놀 듯
상슈(湘水)의 장어(葬魚)하던	굴삼녀(屈三閭)를 거의 볼 듯
봉창(蓬窓)의 정금(整襟)하고	턴명(天命)만 기다릴새
한 조각 남글 어더	기계(器械)를 수보(修補)하니
전위위안(轉危爲安)이	저근덧 스이로다
스싱(死生)이 유명(有命)하고	화복(禍福)이 지턴(在天)하니
오늘날 사라남은	우리 님 도으신가

위는 梨津港口를 떠나 配所인 추자도에 닿을 때까지의 항해 경로 및 情

狀을 그린 대목으로 死境을 헤매는 海路에서의 위험과 舟中の 悽絶한 情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時夜將半에 狂風이 接天하여 中流에서 失舵하고 呼吸이 위태롭게 되니 長年도 束手하고 舟中이 失色하여 死生의 境地를 헤매었다는 장면이 꼭 悽然하다. 그러나 북곡은 危地에 서도 經史를 默誦하고 先賢의 道를 생각하며 泰然自苦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오늘날 살아 남은 것은 님의 恩寵임을 토로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북곡의 강직한 성격의 一面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에서는 舟楫(배), 黑子(검·바둑돌), 狂風接天(높은파도), 長年(뱃머리), 歸虛(헛되다) 등 한자투의 표현이 많아 상황에 대한 묘사가 실감을 덜 해주었다. 또 程叔子和 張子房, 李謫仙과 屈三閭 등 중국의 故事를 인용하여 옛 충신들은 열거하여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시를 읊으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또한 작가가 이들을 등장시킨 것은 유가적 태도와 충성이 변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인데, 이는 사대부나 님으로부터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과 자신을 同一視하여 추자도 유배라는 중형을 당한 처지에서 험난한 항해에서 살아 있는 것이 님이 도와준 것인지 회의하고 있으며, 다소 충군의식이 흐려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본사의 제5단락으로 92행에서 119행(동방이 기백 흰매~다시곰새로와라)까지다.

동방(東方)이 기백(既白) 흰매	소리 높고 낙범(落帆) 흰야
석기(石磯)의 비를 밟고	도둥(島中)의 드러가니
촌락(村落)이 쇼조(蕭條) 흰야	수십호(數十戶) 어가(漁家)로다
풍우(風雨)를 무릅쓰고	와실(蝸室)을 츠즈드니
모즈(茅茨)는 다 늘니고	죽창(竹窓)의 무지(無紙) 흰대
상상옥누(床床屋漏)는	막은대 전(專)혀업다
말만한 좁은 방(房)의	조슬(蚤虱)도 만흔시고
팔척당신(八尺長身)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를 서려 누워	긴 밤을 새와나니
쥬둥(舟中)의 적신 의복(衣服)	어니 불의 물너오며
일행(一行)이 기갈(飢渴) 혼들	무어스로 구홀 손고

행탁(行囊)을 찢어 내니	수두미(數斗米) 뿐이로다
백죽(白粥)을 뿌어 내어	둘너안자 뇨기(療飢)하고
복물선(卜物船) 도박(到泊)함을	일야(日夜)로 바라더니
여익(餘厄)이 미딘(未盡)해야	둥양(中洋)의 치패(致敗)하니
만스여싱(萬死餘生)이	스라나미 다행(多幸)하나
결활(契活)이 무책(無策)하니	어이해야 지보(支保)하고
십장형니(十丈荊籬)를	스면(四面)의 둘너치고
북편(北偏)의 궁글 두어	물길흘 겨유 내니
구만니 당텨(九萬里長天)을	덩둥(井中)의 바라보듯
듀야(晝夜)의 들니느니	헝도(海島)와 멩풍(盲風)이오
도모(朝暮)의 섯두느니	당무(瘴霧)와 만우(蠻雨)로다
서식(棲息)을 미딩(未定)하여	냥질(兩姪)을 니별(離別)홀시
당부(丈夫)의 일촌간장(一寸肝腸)	냥항누(兩行淚)를 금(禁)홀소나
남관(藍關)의 별손(別孫)하던	한니부(韓吏夫)의 정경(情境)이오
월강(越江)의 송데(送弟)하던	뉴즈후(柳子厚)의 회포(懷抱)로다
압송관(押送官) 비별(拜別)해야	넘계신 대 도라가니
경경(耿耿)흔 일단심(一丹心)이	다시곰 새로와라

이는 날이 밝아서 뜻을 내리고 추자도에 到着한 卽後의 情狀과 수행자들과의 이별의 情景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다. 風雨中 처음 찾아든 집이 초라한 蝸室이었는데 茅茨는 다 날리고 창호지도 없는 竹窓에 비는 새어 濕氣는 차고 蚤虱은 득실거리며 몸들 곳을 모른다. 흰죽으로 연명을 하며 十丈荊籬 속에서 晝夜에 들리는 것은 海濤와 猛風이와 조석으로 일어나는 것은 瘴霧와 蠻雨이다. 이들을 벗 삼아 지내게 되는 자신의 悽慘한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또 配所까지 시중왔던 兩姪과 押送官을 이별하는 場面으로, 특히 兩姪과의 이별하는 모습은 꼭 哀傷的이어서 藍關에 別孫하던 韓吏夫와 越江에 送弟하던 柳子厚의 懷抱와 견주어 표현한 것은 자못 實感나게 하는 수법이며, 押送官을 보냄에 있어 새로워지는 戀君의 情을 피력하였다.

이 단락은 도착전경, 의식주의 부족, 생활걱정, 위리안치된 상황과 고독 등 삶의 간고함과 환경의 악조건으로 전체가 부정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風雨, 蝸室, 蚤蟲, 白粥, 十丈荊籬 등 유배지의 困苦함을 적나라하게 그렸고, 斷切과 孤寂感에 사로잡힌 화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그러나 연군가사인 미인계가사로서 갖춰야 할 충군의식의 표현이 전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본사의 제6단락으로 120행에서 131행(가을이 점점깊고~늑게야 씨드롭다)까지다.

가을이 점점(漸漸)깊고	객회(客懷)는 노락(寥落)헌대
송옥(宋玉)의 비추부(悲秋賦)를	초성(楚聲)으로 늑이 읊고
뉴박이객(柳朴二客)을	초초(悄悄)히 상대(相對)헌야
용슬수간옥(容膝數間屋)을	초창(草創)헌물 경영(經營)헌시
도둥(島中)의 모든 백성(百姓)	단심(盡心)헌여 완역(完役)헌니
번토운와(番土運瓦)헌던	창화현풍속(昌化縣風俗)일다
제도(制度)는 추익(湫隘)헌나	거처(居處)는 쇼쇄(蕭洒)헌다
언양굴신(偃仰屈身)헌미	이제야 조안(粗安)헌다
감군은삼즈(感君恩三字)를	벽상(壁上)의 대서(大書)헌고
망미현(望美軒) 편익(扁額)은	도둥(島中)의 뉘 모로리
종일폐호(終日閉戶)헌고	쥬서(朱書)를 피열(披閱)헌니
의리무궁(義理無窮)흡을	늑게야 씨드롭다

위에서는 가을, 객회, 노락, 비추부, 초성 등은 단절과 고적함을 잘 나타내 주는 시어들로 중국의 古事나 詩賦를 사용하였다. 초나라 宋玉의 悲秋賦는 가을의 쓸쓸함을 노래한 것이고 楚聲도 슬픈 가락으로 유명한 초나라의 노래를 일컫는다. 이는 가을이라는 계절과 시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고도에 유배 온 작자의 감상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또 배소에서 柳, 朴 二客의 협조를 얻어 容膝數間屋을 島中の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昌化縣 풍속으로 겨우 몸 붙일 두어 칸 집을 창건하고, 壁上에는 ‘感君恩’ 三字를 大書하고 ‘望美軒’이라는 扁額을 걸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朱書를 披閱하며 聖賢의 道를 窮究하는 사대부의 진지한 모습을 읊었다.

이제 용슬수간옥을 창건하고 망미현이라 이름하고 안주하니 다소간 상실감과 불안감을 감추고 충군의식을 나타내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朱子 書を 통하여 성현의 도를 익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면서 미약하나마 님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읊고 있는 단락이다.

다음은 본사의 제7단락으로 132행에서 153행(도작은 본디업고~세상의 하도 할사)까지다.

도작(鳥鵲)은 본(本)디 업고	오연(烏鳶)만 지저괴며
어두귀면(魚頭鬼面) ㄱ호	포한(浦漢)이를 만나보니
야록(野鹿)의性情(性情)이오	딕만(貊蠻)의 어음(語音)일다
상대딕딕(相對脈脈) ㅎ야	무슴 말을 슈작(酬酢)홀고
엄동(嚴冬)이 깊혀지고	늑디(陸地)를 못 통(通)ㅎ니
양식(糧食)도 꺾절(乏絶)거든	반찬(飯饌)이야 의논(議論)ㅎ며
염장(鹽醬)을 못먹거든	어육(魚肉)이야 ㅂ랄소나
도등슈십니(島中數十里)의	일년초(一年草) 희한(稀罕)ㅎ다
도석(朝夕)밥 못닉일 제	방(房)담기 싱각홀가
정도대명일(正朝大名日)의	소(素)국의 썩을 썬어
갯물의 저린 비츠	상찬(上饌)으로 올라시니
어와 이 경상(景像)은	싱니(生來)의 처엄보내
춘풍 도리화(春風桃李花)야	못보다 관계(關係)ㅎ라
ㄱ을이 다 딛(盡)토록	국화(菊花)를 못보거든
낙모가절(落帽佳節)의	축신(逐臣)을 ㄴ우시며
녕균(靈均)이 여기 온들	무어스로 석찬(夕餐)홀고
삼하(三夏)를 열딘(閱盡)ㅎ고	고황(苦況)을 포긱(飽喫)ㅎ니
염증(炎蒸)도 그지업고	비습(卑濕)도 즈심(滋甚)ㅎ다
승예문맹(蠅蚊蚊盲)은	딕(百)가지로 ㅂ지지고
샤갈오공(蛇蝎蜈蚣)은	스벽(西壁)의 종횡(縱橫)ㅎ니
흔 일도 흥황(興況) 업고	딕악(百惡)만 구비(具備)ㅎ다
상인희물(傷人害物)홀 것	세상(世上)의 하도 할사

이 단락은 생소한 도민들의 모습, 荒涼한 配所의 풍경, 日用的 窮塞함 등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居所의 濕氣가 많고 毒蛇와 해충들이 우글거리는 極度의 곤경에서 고생하는 艱苦한 생활상을 실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섬주민의 모습, 간고한 생활상, 자신의 궁핍상, 여름날의 고생 등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섬에는 吉鳥는 없고 凶鳥만 있으며, 주민들의 인상을 거북얼굴, 들사슴, 오랑캐 목소리 등으로 표현하여 거칠고 무뚝뚝하여 낯설게만 표현하였다. 그리고 간고한 생활상의 표현은 海路가 끊어지니 양식도 부족하고 소금과 장도 부족한데 고기를 바라겠는가 라고 한탄하고 있다. 또 자신의 궁핍상을 밥지을 나무도 없는데 방에 불을 피우겠는가고 반문하고, 설날 큰 명절에도 素국의 떡국을 쭉고, 바닷물로 절인 배추가 가장 좋은 찬이라 하여 작가의 고독과 서글픔을 진하게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름날의 고생에서는 현실에 적응하는 평민적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더위와 습기에 대한 불만과 파리와 눈에놀이, 모기와 등에 등 毒蟲은 모두 한자어를 사용하여 적대 동물을 묘사하여 간고한 생활상을 실감있게 그려 주고 있다.

다음은 본사의 제8단락으로 154행에서 178행(똥야의 줌이 업서~늘 위 하야 단장홀고)까지이다.

똥야(中夜)의 줌이 업서	옹금(擁衾)호고 니러안자
신세(身勢)를 즈탄(自歎)호고	평싱(平生)을 무렴(撫念)호니
고로(孤露)호 이 내 몸이	즈성(子姓)도 업슨내오
장희(瘴海)의 병(病)이 든들	구호(救護)호리 닐 이시며
반계(盤溪)에 넷 페려(蔽廬)를	뷔여신들 닐 덕힐고
스셔턴권(賜書千卷)을	고각(高閣)의 못거시니
두셔툭(蠹書虫) 다 먹은들	기 닐라셔 포쇄(曝洒)호며
평천장(平泉庄) 만원화(滿圓花)를	전벌(剪伐)호들 닐 금(禁)홀고
천하(天下)의 무고(無辜)호 니	나밧기 쏘 이실가
쥬문왕(周文王) 티기(治岐)홀 제	인정(仁政)을 베프시면
가련(可憐)호 이 내 몸이	반드시 문져 들니

턴디간(天地間) 독립(獨立) 하야	스방(四方)을 둘러보니
우리 님 아니시면	늘을 다시 의지(依支) 홀고
시운(時運)이 불행(不幸) 하야	천리(千里)의 썩나시니
내 신세 고향(身勢孤子) 혼 줄	님이 모르실가
긴스매 들고 안자	넷 건양(愆殃)을 녀슈(歷數) 하니
우직(愚直) 하기 본성(本性) 이오	광망(狂妄) 흠도 내 죄(罪) 오나
근본(根本)을 생각 하니	님 위(爲) 혼 정성(精誠) 일시
일월(日月) 마튼 우리 님이	거위 아니 조림(照臨) 홀가
싱성(生成) 하신 이 은혜(恩惠) 를	결초(結草) 하기 기약(期約) 하나
협스(篋筭)의 추풍선(秋風扇)이	어느 날 다시 날고?
청신(淸晨)의 혼즈 누어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황금(黃金)을 못 어드니	당문부(長門賦)를 어이 사리
지하(芰荷)로 오솔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협등(篋中)의 두어신들	늘 위(爲) 하야 단장(粧) 홀고

이는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불안과 초조한 심사를 드러낸 것으로 앞날에 희망 없음을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一點血肉도 없는 평생을 생각하며 “盤溪 예 넷 蔽廬를” 누가 보살피 주며, “賜書 千卷을 高閣의 못거시니 蠹書蟲 다 먹은들 기 누리서 曝酒 하며, 平泉庄 滿園花를 剪伐 혼들 누 禁 홀고” 하여 孤寂한 신세를 自歎하고 있다. 이렇게 집안 일을 염려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죄가 없으며 孤子單身인 것을 님이 알지 못하고 “日月 마튼 우리 님이 거의 아니 照臨 홀가”라 하여 님이 자기를 보살피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광주리에 담긴 秋風扇이 되었으니 언제 다시 나를 날이 있을까? 마름과 연꽃으로 옷을 지어 상자속에 담겼으나 늘 위해 단장할까? 라 하여 聖寵回復의 불가함과 권력핵심에서 밀려난 유배자의 진한 소외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中國의 詩賦를 인용하여 성종의 회복 의지를 표현하였는데 <白頭吟>은 前漢時代 司馬相如의 부인 卓文君의 작품으로 남편이 쫓을 얻으려 하자 이 시로 결별의 뜻을 전하니 相如가 쫓 얻는 것은 단념하였다고 하였고, <長門賦>는 陳皇后가 武帝의 총애를 잃은 것을 슬피하여

長門宮에 별거하면서 황금 백근을 司馬相如에게 주어 이 賦를 짓게 하였는데, 이것으로 武帝의 총애를 회복하였다고 한다. 자신도 성충을 회복하여 解配되고픈 간절한 소망을 비유하여 읊은 것이다.

다음은 結詞로 179행에서 187행(고국의 도라갈 꿈~여일망지호노라)까지이다.

고국(故國)의 도라갈 꿈	벽해(碧海)를 문이 뵈고
옥누(玉樓) 높흔 곳의	야야(夜夜)의 님을 뵈서
일당우불(一堂吁拂)의	슈답(酬答)이 여향(女響)하니
전선(前席)의 문귀(問鬼)하던	가태부(賈太傅) 이갓홀가
어촌원계성(漁村遠鷄聲)이	긴잠을 쫓드르니
우리 님 옥음(玉音)은	이변(耳邊)의 완연(宛然)하고
우리 님 어로향(御爐香)이	의슈(衣袖)의 품여계라
어느날 이 내 꿈을	진죽(盡之)것 삼을손가
두어라 왕서기가지(王庶幾改之)를	여일망지(余日望之)호노라

위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1행에서 4행까지는 꿈속의 情況이고, 5행에서 8행까지는 꿈을 깬 후의 현실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9행은 가사의 終結形式을 엿볼 수 있는 終行이라 하겠다.

앞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갈 꿈속에서 푸른 바다를 무너 밟고 건너가 백옥루 높은 곳에 밤바다 님을 뵈시어 노니 한 집안의 탄식이 회복되기가 울림처럼 빠르니 효문제 앞에서 귀신의 道를 말하던 가태부의 심정이 이만할까라 하여 꿈을 빌어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 있다.

뒤에서는 어촌 멀리서 들리는 닭소리에 긴한 잠을 깨었으나 아직도 우리 님 음성은 귓가에 완연하고 우리 님 향로의 향기를 옷소매에 품어 있구나 어느 날 이 내 꿈을 못 이루고 다 끝나버리고 말려는가? 라 하여 꿈에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이상은 이룰 수 없고, 희망 없음을 의문형종결어미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종행에서 두어라! 님이 마음을 고쳐 먹기를 나는 날로날로 바라노라고 하여 님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서 자신에 대한 해배의 은총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읊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結詞를 終行二句로 보면서 結詞는 本詞의 내용과 무관한 독립된 성격의 내용을 가짐으로 낙구라 하면서 이를 결사로 보고 있어 낙구의식과 결사의식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가끔 사대부 가사에 시조의 종장형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가사가 시조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가나 시조에 나타난 낙구나 종장형식은 가사전체의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가사처럼 긴 형식의 문학에서는 그 분량으로 보아 그렇게 속한지를 수 없는 것이다. <상춘곡>의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 흐리’, <만분가>의 ‘아모나 이내뜻 알의곳이시면 百歲交遊 萬世相感 흐리라’ <사미인곡>의 ‘님이야 날인줄 모르셔도 내님조츠려 흐노라’ <속사미인곡>의 ‘각시님 들이야 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별사미인곡>의 ‘각시님 잔가득 부으시고 한사람 이자쇼셔’ 등의 종장 형식을 결사로 나누지 않을 뿐더러 落句라는 것으로 分段하는 것은 내용 이해에 혼동을 초래할까 염려된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입장에서 結詞를 분단하여 고찰하였다. 여기에는 解配의 꿈과 소원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祝願詞로 꿈속에서 님을 만나 수답함이 如響하였다가 비록 닭소리에 잠을 깨었으나 님의 향기는 남았지만 이 꿈은 다된 것 같으니 왕이 마음을 고쳐 먹기를 나는 날로 기다리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 작품의 전체적 내용을 총괄하는 단락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속사미인곡>은 전반적으로 戀君意識이 바탕한 思美人系歌辭로 戀主忠君의 情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밤마다 玉樓에서 님을 모시고 玉音を 듣는다는 님에 대한 戀君一念을 보여준 작품이다. 그러나 중죄인으로 먼 유배지에서 생활의 간고와 고적감이 쌓임으로 思美人과 戀君意識은 차차 좌절, 패배, 소외 등 불안의식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중죄의식의 發顯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이지만 한편으로는 士大夫意識의 표출과 聖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함으로 自己救授과 解配에의 희망과 기대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노래함으로 유배문학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유배자의 문학이지만 먼 곳으로 配所까지 이동해 가는 여정에 따

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체험을 노래하기 때문에 아울러 기행문학적 성격도 함께 지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IV. 紀行文學性

<속사미인곡>에 기행문학적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가 많았다. 먼저 정익섭¹⁶⁾은 이 작품을 작자가 추자도에 귀양가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오던 중 禍를 만나 추자도로 定配되는 경로와 3년간 그 섬에서 지내는 동안의 여러 가지 고난과 회포를 紀行敘事의 手法으로 실감나게 그려낸 노래라고 하여, <속사미인곡>의 형식이 기행문학적 특성을 지녔음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서원섭¹⁷⁾도 松江의 前後思美人曲과 比軒의 <별사미인곡>의 구성이 다 같이 자신의 심정을 젊은 여인에 寄託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가사에서는 紀行體의 수법과 자신의 심정과 애절한 충심을 獨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기행문학적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돈모¹⁸⁾는 <속사미인곡>은 思美人曲系의 가사요, 유배가사이며, 紀行歌辭인 복합적인 성격을 띤 작품임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의 전개방식은 다른 사미인곡계의 가사와는 달리 紀行歌辭로도 파악될 수 있는 작품임을 감안하여 기행가사로 위상을 확실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완곡한 수식을 사용한 思美人系歌辭와 달리 流配의 路程을 寫實的으로 묘사하여 처절하리 만큼 절실한 자기의 忠情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윤재철¹⁹⁾도 유배가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행체적 수법을 사용했으나 후기가사에 비하여 실감, 생동감, 현장감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속사미인곡>의 큰 특징은 紀行體 구성 방

16) 정익섭, 전계논문.

17) 서원섭, 전계서, 228쪽.

18) 이돈모, 전계논문, 77쪽.

19) 윤재철, 전계논문, 82쪽.

식의 도입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서 실제 작품에 나타난 기행문학적 성격이 노출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사 제1단락에서 路程이 드러난 詩行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하의 식욕하고	샤자거로 도라오니 (6행)
봉황성 다드르며	고국쇼식 경심하다 (7행)
구연성 노숙하고	압녹강 밧비건너 (14행)
청천강 삼일우의	정삼을 다 적시고 (16행)
성야의 질치하야	패수롤 건너 올시 (17행)
근기 압송은	고금의 초견이요 (19행)

위에서 西河(산동요현 서하촌) → 鳳凰城(봉천 봉성현의 고을) → 九連城(압록강변 의주 맞은편 마을) → 鴨綠江 → 淸川江 → 溟水(대동강) → 近畿(서울 가까운 곳)까지의 路程은 작가가 中國使行中 奉天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귀국을 서둘러 근기에 이르자 호송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過程이 분명하게 보인다. 또한 黃昏, 讒言, 露宿, 三日雨, 疾馳, 押送, 薄命 등의 詩語는 당시의 촉급한 정황을 말해 주고 ‘녀관 잔등의 피눈물이 절로난다’는 마지막 행에서 작가의 괴로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본사 제2단락에서 路程이 드러난 시행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오리 금턱귀를	벽제역의 만나보고 (23행)
성서구턱의	가묘의 하직하니 (25행)
관악산 십리지의	송츄의 흘날 쉬여 (29행)
종남을 회수하니	오운의 의의하고 (31행)
의릉을 첨망하니	송빅이 창창하다 (32행)
고신원누를	한수의 ㄱ득썩려 (33행)
호남길 더위잡아	노령의 올라쉬여 (36행)
금성산 바라보고	적소를 츠즈가니 (39행)



위에서 碧蹄驛(고양군 벽제읍) → 城西(서대문구 교남동 반송방) → 冠

岳山 → 終南(終南山 現 南山) → 懿陵(楊川南文藏山の 景宗의 陵) → 漢水(한강물) → 湖南길 → 蘆嶺(井邑과 長城사이의 갈재) → 錦城山(전남 나주시에 있음)까지의 路程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나주 배소까지 도착하는 정경이다.

先山拜別, 家廟下直, 親戚離別 등에서는 죄인으로 유배길에 오르는 정황을 상세히 그리고 있으며, 남산을 바라보고 선왕릉을 우러르며 孤臣의 怨淚를 뿌리며 떠나가는 자신의 마음을 잊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님의 충애를 기다리는 심정을 읊었다. 그리고 유배지 나주를 樂土라 하면서 님의 은혜가 도처에 망극하다고 노래하였다.

또한 제3단락에 나타난 紀行路程은 추자도로 移配命을 받고 金吾郎을 기다리는 동안 金陵(강진읍의 옛 이름)에 귀양간 眞儉 아우를 만나 月南村(강진군에 있는 마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고 이별하니 형제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배 생활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제4단락에서는 梨律港(해남 남쪽 항구)을 출발하여 추자도에 도착하기까지의 情狀을 그렸다. 舟楫(배)를 타고 滄波를 헤치고 孤島를 지나 가다가 狂風을 만나 呼吸이 危殆하게 되니 死生이 관계하겠는가. 그러나 死生이 有命하고 禍福이 在天하다라고 하여 항해 도중의 위기를 극복한 상황과 다시 살아난 것은 자상하신 우리 님의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으나 다소 회의적인 표현을 하였다.

제5단락은 東方이 밝아 오니 돛을 내리고 石磯에 배를 매고 섬(추자도)에 도착하여 보니 村落이 쓸쓸한데 數十戶된 어촌이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蝸室로 찾아드니 茅茨는 다 날리고 竹窓은 無紙하다. 말(斗)만한 방에 蚤蠹도 많거니와 八尺長身이 굽어들고 굽어나면 다리를 서러 누워 긴 밤을 새웠다. 배에서 젖은 의복도 불이 없어 못 말리고 일행이 饑渴하나 무엇으로 구할까. 흰죽을 쑤어서 둘러앉아 요기를 했다. 卜物船도 中洋에서 致敗하니 萬死餘生이 사라남이 多幸하다. 그러나 앞으로 삶의 계획이 없으니 어떻게 삶을 支保할까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四面에는 十丈荊籬를 둘러오니 九萬里 長天을 井中에 바라보듯 하고 晝夜에 들리는 것은 海濤와 盲風이요 朝暮의 첫두는 것은 漳霧와 蠻雨라 하였다. 그런 가운데도 자신을

두고 떠나는 兩侄의 이별을 애상적으로 그렸으며, 자신을 데려온 押送官과의 이별도 耿耿한 一丹心이 새롭다고 하여 感君恩의 심사를 그리고 있다.

제6단락에서는 자신이 살아 갈 草屋(容膝數間屋)을 창건하여 ‘望美軒’이라 扁額하고 朱書を 披閱하니 의리의 무궁한 뜻을 뒤늦게서야 알겠구나고 하여 安住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읊었다.

제7단락은 荒涼한 배소의 정경과 곤궁한 生活相을 실감나게 그렸다. 이곳은 鳥鵲은 본대 없고 烏鳶만 지저귀며 魚頭와 鬼面같은 逋漢(갓가어부) 이를 만나보니 野鹿의 性情이요 貂蠻의 말소리다. 또 서로가 脈脈하여 무슨 말을 주고받기가 어렵다 하였다. 더구나 嚴冬이 깊어지고 육지와 不通하니 양식도 없고 鹽藏도 없다. 房도 좁고 바닷물에 절인 배추가 上饌이라 하여 어렵고 궁색한 정상을 볼 수 있고, 특히 三夏의 苦況은 더욱 하니 炎蒸도 끝이 없고 卑濕도 극심하다. 또한 蠅蚋蚊蠹은 百가지로 쏘아대고 蛇蝎蜈蚣은 四壁에 縱橫하니 한 일도 興況이 없고 百惡만 具備하였다고 하여 유배지의 困苦함을 신랄하게 표현하였다.

제8단락은 자기 집안의 걱정과 신세 한탄을 중심으로 엮어졌다. 中夜에 잠이 없어 擁衾하고 앉아 신세 한탄하니, 子省도 없어 病이 들면 누가 救護할까? 盤溪에 蔽廬, 賜書千卷, 平泉庄의 滿園花를 누가 지킬 것인가 無辜한 자신이 依支할 곳은 그래도 님 뿐인데 이마를 짚고 앉아 옛 허물을 차례대로 세어보니 遇直한게 本性이요 狂妄함도 내 罪라 그래서 日月같은 우리 님이 거의 아니 照臨할까? 이제 秋風扇의 신세로 白頭吟과 長門賦를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성충을 구할 수 없으니 늘 위해 丹粧할까? 라고 하여 聖寵의 회복과 解配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처지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과 신세를 한탄하였다.

제9단락은 結詞로서 聖寵의 회복과 解配의 소망을 祈願하는 내용이다.

碧海를 무너 밟고 고국에 돌아가 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님을 모시고 一堂 吁拂의 수답이 如響하는데 漁村 遠鷄聲이 깊은 잠을 깨웠으나 우리 님 玉音과 御爐香이 역역한데 어느날 이 꿈이 다 되고 말려는가? 두어라 님이 이것을 고치기를 나는 날로 바라노라 하여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님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대한다는 기원으로 끝맺고 있다. 이

처럼 자신의 소망을 자기중심적이고 희망 사항을 적극적인 요구로 일관하고 있어 다른 유배가사들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행체 구성방식을 도입한 것이라 하였고, 내용 전개를 분석해 본 결과도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기행체 구성 방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강현²⁰⁾은 ‘출발 → 여정 → 여행지 → 회정’의 순서로 진술하는 가운데 여행 중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견문과 감상을 기록하는 구성방식이라 하였다. 그리고 출발, 노정, 목적지, 객창감, 견문, 귀환 등을 기행문적 요소로 보고 37편의 기행가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적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로 기행체 구성의 정격형 또는 완전형이라 할 수 있는 유형을 위와 같이 4단계로 제시하였다.

<속사미인곡>에는 유배지로 향하는 출발, 과정,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견문이 세세하게 진술되어 있는 만큼, 작가 이진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록의 충동을 느낄 정도의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사실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기행을 하게된 동기를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유배(이별)의 동기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님이 박정해서도 아니라 자신을 질투한 여인들의 참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인들은 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유배가 노론 일당의 모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출발의 전경은 여러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선산에 들러 통곡하는 장면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별하는 장면, 옛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야박한 인심을 깨닫게 되는 장면 등은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님을 떠나는 슬픔과 그리움은 “孤臣冤淚를 漢水の ㄱ득 뿌려 / 님 향흔 一片情을 참고 춤아 썩나가니 / 내 므옵 이리홀 제 님이신들 니즐 손가”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목숨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인데다 님과 화자는 서로 소원한 사이이므로 의식적으로라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님과 화

20)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82, 15~16쪽.

자의 거리는 다른 사미인곡계 가사의 경우보다 더 멀리 잡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발의 전경과 함께 노정과 목적지, 객창감과 견문은 비교적 소상히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회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왕명에 의한 유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기행문과 차이를 보이는 특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속사미인곡>은 내용 전개에 있어 기행문학성이 충분히 반영된 작품이라 하겠다.

V. 結論

이 연구는 <속사미인곡>의 기행문학성에 대한 고찰로서 창작배경, 작품 구조, 기행문학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작배경은 작자의 생애와 당쟁의 실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진유의 부친 大成은 소론의 極峻者로 대쪽같이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북곡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극심한 당쟁의 와중에 빠지게 되었다. 老小論의 논쟁은 數年에 걸쳐 계속되고 북곡도 부친 大成과 함께 宋時烈과 尹宣學·尹極父子와의 시비의 와중에 말려 대립하다가 숙종 41년(1715) 7월에 안중필의 상소로 인하여 削黜의 罰을 받게 되었다.

景宗은 본래 痼疾이 있어 後嗣를 볼 가망이 없으므로 그 元年 신축10月 執義 趙聖復이 王弟 연잉군(英祖)의 參聽을 疏請함에 卽日로 주는 奇疾로 萬機를 살피기 어려우니 大小 國事를 王弟가 裁斷하여 나로 하여금 편안히 調養케 하라고 하는 傳敎가 내렸다.

이는 곧 소론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12월에는 司直 金一鏡·朴弼夢·李明誼·李眞儒·尹聖時·鄭楷·徐宗廈 등의 맹렬한 반대상소가 있었다. 이 연잉군(영조) 王世弟 책봉 문제를 둘러싼 노론의 찬성, 소론의 반대는 심히 격렬하여 당사자인 연잉군은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불안에 辭封王弟疏를 다섯 번이나 올렸고, 소론 중 과격파인 김일경은 심지어 연

영군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 이런 가운데 노론의 옹호를 받고 있어 연영군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불안초조와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일찍이 자기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김일경을 疏頭로 한 一黨 6인에 대한 중요심은 골수에 맺히게 되었다.

경종이 在位 4년만인 春秋 37세로 昇遐하니, 同 8월 30일 영조가 즉위하였다. 영조 원년(1725) 정월(2일)에 일찍이 김일경과 목호룡이 영조를 쏘하려 하였던 까닭에 노론의 맹렬한 지탄을 받고 誅殺 혹은 杖斃되었고, 辛丑 疏下 6인도 削奪官爵에 門外黜送되었다. 義禁府의 狀啓로 북곡은 羅州에 유배케 되어 使臣갔다 돌아오는 길에 正使 일행보다 한 발 앞서 配所로 押送되었다.

그리고 추자도 이배의 명이 내릴 때까지 노론들은 북곡을 죽이라고 청한 庭啓가 38차나 올랐으며, 이후에도 계속되니 영조는 그에게 絞首刑을 내렸다. 그러나 북곡은 辛丑疏 이외에는 他罪가 없다고 大監들이 극력 諫함으로 3년 만에 出陸이 減해지니 이전 配所인 나주에 量利되었다. 英祖는 辛丑疏下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골수에 맺혀 있어 북곡을 遠竄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를 다시 笞鞠하라 하니 노론들의 依律處斷의 청이 빗발치듯 하여 드디어 物故를 당하니 영조 6년(1730) 5월, 이때 북곡의 나이 62세였다.

위에 나타난 유배상황을 요약하면, 57세(영조1년, 1725) 1월에 나주로 유배되었다가, 7월에는 추자도로 이배당했다.(아우 眞儉도 6월에 강진에 유배) 59세(영조3년, 1727) 10월에 다시 나주로 이배되었으나 유배생활 6년째인 62세(영조6년, 1730) 4월 鞠問物故 당했다. 북곡은 死後 25년(영조31년, 1755) 羅州壁書事件으로 소론의 治罪가 문제되어 逆律이 追施되어 緣坐定配가 있어, 北谷의 조카 李匡明은 甲山으로, 李匡師는 會寧으로, 北谷의 손자 李肯翊도 함께 유배되어 一家四篇의 유배가사를 남겼다.

다음에는 작품구조를 살펴본 바, 이 작품은 明나라 使行을 다녀오던 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近畿에서 압송되어 나주에 유배되었다가 추자도에 移配되어 가는 路程과 그 곳에서의 椿棘된 3년간의 온갖 회포를 읊고 있다. 이처럼 紀行歌辭로도 볼 수 있는 <속사미인곡>은 그 내용의 전개에 따라

작품구조를 序詞, 本詞, 結詞 등 크게 셋으로 나누고, 本詞로 다시 8단락으로 분단하여 모두 10단락으로 나누었다.

<속사미인곡>은 전반적으로 戀君意識이 바탕한 思美人系歌辭로 戀主忠君의 情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밤마다 玉樓에서 님을 모시고 玉音を 듣는다는 님에 대한 戀君一念을 보여준 작품이다. 그러나 중죄인으로 먼 유배지에서 생활의 간고와 고적감이 쌓임으로 思美人과 戀君意識은 차차 좌절, 패배, 소외 등 불안의식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층군의식의 發顯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士大夫意識의 표출과 聖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함으로 自己救授과 解配에의 희망과 기대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노래함으로 유배문학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유배자의 문학이지만 먼 곳으로 配所까지 이동해 가는 여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체험을 노래하기 때문에 아울러 기행문학적 성격도 함께 지녔다.

끝으로 <속사미인곡>에 기행문학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앞장에서 내용 전개를 분석해 본 결과도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기행체 구성 방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강현은 ‘출발 → 여정 → 여행지 → 회정’의 순서로 진술하는 가운데 여행 중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견문과 감상을 기록하는 구성방식이라 하였다.

<속사미인곡>에는 유배지로 향하는 출발, 과정,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견문이 세세하게 진술되어 있는 만큼, 작가 이진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록의 충동을 느낄 정도의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사실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기행을 하게된 동기를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유배(이별)의 동기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님이 박정해서도 아니라 자신을 질투한 여인들의 참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인들은 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유배가 노론 일당의 모함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출발의 전경은 여러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선산에 들러 통곡하는 장면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별하는 장면, 옛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야박한 인심을 깨닫게 되는 장면 등은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님을 떠나는 슬픔과 그리움은 “孤臣冤淚를 漢水の 3득 뿌려 /

님 향흔 一片情을 참고 춤아 썬나가니 / 내 믅음 이리홀 제 님이신들 니즐 손가”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목숨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인데다 님과 화자는 서로 소원한 사이이므로 의식적으로라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님과 화자의 거리는 다른 사미인곡계 가사의 경우보다 더 멀리 잡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발의 전경과 함께 노정과 목적지, 객창감과 견문은 비교적 소상히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회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왕명에 의한 유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기행문과 차이를 보이는 특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속사미인곡>은 내용 전개에 있어 기행문학성이 충분히 반영된 작품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1. 저서

- 김성배 외,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국학자료원, 1994.
_____, 『가사문학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서수생, 『한국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0.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_____, 『가사문학론』, 형설출판사, 1983.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_____, 『한국가사전집』, 집문당, 1981.
_____, 『18세기 가사전집』, 도서출판 민속원, 1991.
정기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4.
정익섭, 『한국시가문학논고』, 전남대출판부, 1989.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4.
최강현, 『한국기행문학 연구』, 일지사, 1982.

- _____, 『가사문학론』, 새문사, 1986.
- _____, 『기행가사자료선집』, 국학자료원, 1996.
- _____,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1996.

2. 논문

- 권성준, 「유배가사의 미학적 접근」,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 김혜숙, 「유배가사를 통하여 살펴본 가사의 변모양상」, 『관악어문학』 8, 서울대, 1983.
- 류연석, 「안조원[환]의 유배가사연구」,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1996.
- _____, 「매계 조위의 <만분가> 연구」, 『古詩歌研究』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_____, 「<만분가>의 내용적 고찰」, 『古詩歌研究』 제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문찬식, 「유배가사연구」, 『논문집』 1권, 광주경상전문대, 1981.
- 박춘우, 「유배가사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서원섭, 「속사미인곡 연구」, 『어문논총』 3호, 경북대, 1966.
- _____, 「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연구」, 『논문집』 제11호, 경북대, 1967.
- 안정환, 「적소시가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양순필, 「제주유배가사에 나타난 생활상」, 『제주대학논문집』 제17집, 인문학편, 1984.
- 윤귀섭, 「유배가사의 양극」, 『동대논총』 제2집, 동덕여대, 1971.
-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돈모,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이병기,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5호, 국어국문학회, 1956.
- 이상무, 「유배가사 연구-내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장덕순, 「유배가사시고」,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3.
- 정익섭, 「유배문학소고」, 『무애 양주동박사 화탄기념 논문집』, 동국대, 1963.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3.

최종식, 「유배가사연구-만분가, 별사미인곡, 속사미인곡, 만언사, 만언사답, 북천가를 중심으로-」, 전주우석대 석사학위논문, 1994.

<투고일 : 2005.6.28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bstract

A Study on “Sok-Samiingok” by It’s “Gi-haeng-mun-hak” Characteristic

Ryu, Yeon-seok

This reaserch is focus on “Gi-hang-mun-hak” characteristic of “Sok-Samiingok” and also include It’s creation background and structure. The creation background of “Sok-samiingok” is going back to the time when the author was in a exile after he got convicted as guilty from the fraction on a tax decision

The structure of “Sok-samiingok” consists of “Seo-sa”, “Bon-sa”, “Gyeol-sa” in a large pard also It has total ten paragraphes including two paragraphes in “Bon-sa”.

The “Sok-samiingok” shows Its “Gi-hang-mun-hak” characteristic of “Yu-bae-ga-sa” by including following factors such as a departure, a route, a destination, a loneliness, an experience and a return.

Key words : Sok-samiingok, Yu-bae-ga-sa, Gi-hang-mun-hak, Creation background, structure